

# 공영주차장 무인정산 '애물단지'

### 전주시의회 한승진 의원, 시설관리공단 행감서 시스템 문제점 지적

#### “이용객 중 신용카드 미소지자에 대한 요금 수납 대처 방안 없어”

전주시의회 한승진 의원은 지난 23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영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전주시의 공영주차장은 전체 82개소로 이중 유료는 20개소이다. 이중, 무인 및 유·무인 정산시스템을 쓰고있는 주차장은 총 17개소다.

한 의원은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의 이용객 중 신용카드 미소지



장의 무인정산시스템 주차요금정산은 신용카드로만 할 수 있는데 카

자에 대한 요금 수납 대처 방안이 없다”며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시설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주차요금정산은 신용카드로만 할 수 있는데 카

드가 없는 이용객이 주차장을 나갈 때 무인수납기에 ‘적색버튼’ 누르고 “카드 없다.”라고 말하면 안내원이 “쓰여있는 계좌번호로 입금해주세요요”라며 차단기가 올라가는 상황이므로 미수금액이 자주 발생하고 심지어 악용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

미수납금은 2018년 8월 기준으로 2017년도 242건, 107만3000원이며 2018년 8월말 미수납 건수는 213건으

로 88만5000원이다.

한 의원은 “지난 행감을 통해서도 공영주차장 미수납 금액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 및 관리 대책 부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며, “이번 행감에서 지적할 당시 까지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업무 부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전혀 속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은 이 문제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게된 목적이 인건비 절감인데 오히려 미수금 발생 등 부작용만 낳고 있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 ‘뇌물수수’ 최규호 법정 선다

### 검찰, 구속기소

골프장 인허가·확장 과정에서 수억원을 챙기고 8년2개월간 잠적한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전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전 교육감을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였던 자영과 부지를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브로커 역할을 한 전북지역 교수 2명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뒤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뉴시스

검찰은 이후 최 전 교육감의 변호인으로부터 “9월 12일 출두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지만, 최 전 교육감은 검찰에 출두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변호인과 연락마저 끊고 자취를 감췄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오후 7시 20분에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도주 8년2개월 만에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 결과 2012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한 최 전 교육감은 기명과 차명을 써가며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피기간 동안 대포폰을 수시로 바꿔 사용했다.

검찰은 친동생인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비롯해 도피 조력자로 의심되는 10여 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였고, 이 가운데 2~3명은 이미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다.

뇌물수수 혐의를 시인한 최 전 교육감은 구속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뉴시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말뚝이장사하고싶은상인모임 단체회원 등 100여명이 국회에서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주시는 23일 밝혔다.

### 노송동 · 노송119안전센터 화재대비 합동소방훈련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동장 최규중)은 노송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3일 노송동 주민센터에서 직원 14명, 예비군 중대 3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소방훈련 및 교육에 의거 화재발생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전 직원 신속한 대피 및 화위소방대 분대별 임무, 화재초기진화, 응급환자 이송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소방훈련에 참여한 직원들은 “소화기 사용방법을 배우고 육내 소화전을 직접 사용해 봄으로써 소화기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고, 화재 시 대피 유도 과정 등을 습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최규중 노송동장은 “이번 소방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공공기관 내 자위소방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 고요한 버스킹, 전주한옥마을에 색다름 더하다

### 전주시, 이달 한달동안 운영... 3회 누적 여행객 2500여명 참여

국가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에서 헤드셋을 낀 여행객만 들을 수 있는 고요한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면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다양한 세대의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11월 한 달 간 헤드셋을 끼고 공연을 듣는 ‘고요한 버스킹’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앞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여행객에게 품격 있는 문화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운영한 야간 국악버스킹에 이어,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여러 워킹 전통 악기연주를 대신해 헤드셋을 끼고 공연을 듣는 이색적인 공연으로 운영됐다.

특히, 고요한 버스킹은 헤드폰으로만 공연 및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에서 소음을 일으키지

않고 버스커들이 다양한 분야의 음악을 시도할 수 있어, 공연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거주민 모두에게 만족감을 선사했다.

그 결과, 매회 평균 800여명의 여행객들이 버스킹 공연에 함께 참여했으며, 특히 공연이 야간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여행객을 하루 더 머물게 만드는 ‘한옥마을 하루 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콘텐츠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4일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린 고요한 버스킹 시범운영결과를 토대로 재정비한 후 내년도 추진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버스킹에 참여한 한 여행객은 “한옥마을에 오니, 정말 버스킹도 한옥마을에 맞게 특별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주민들을 배려하면서도 야간에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가족들과도 특별하고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한옥마을의 콘텐츠 운영에 있어서 기본 원칙인 우리의 전통성을 지켜나가면서도, 여러 문화와 콘텐츠가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공연들이 시도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이해가 기반이 되고, 여행객들도 만족할 수 있으며, 전주의 문화관광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는 한옥마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한옥마을은 연중 내내 문화콘텐츠가 생동하는 공간 조성을 위해 문화공연 일정이 없는 주말에는 △아리랑 공연 △검무 △남궁남자 스탬프 투어 △통기타공연△ 사물판굿 및 삼도사물놀이 등 소규모 행사를 지속운영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 ‘불법촬영 Out, 관심 On’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함께

###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디지털성폭력 근절 캠페인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포래지 캠페인 동아리는 지난 24일 오전 전주시 서신동 일대에서 ‘불법촬영 Out, 관심 On’을 주제로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했다.

포래지 캠페인 동아리는 전주에 거주하는 10여명의 중·고교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지난 3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성의식을 점검하고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잡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성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동아리 회원들은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불법 촬영과 유포 뿐 아니라 유포된 동영상 상을 시청하는 것 또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자

원봉사활동으로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디지털 성폭력 근절에 앞장설 수 있어서 자부심을 느끼며,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관계자는 “포래지 캠페인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도 포래지 문화를 건강하게 재구성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올해 회계마무리 특별정수기간 운영

전주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를 2018년 회계마무리 체납액 특별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징수활동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정수기간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인 676억의 22.8%인 154억원(지방세79억, 세

외수입75억)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모든 체납액에 대해 납부 최고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고질체납자의 소유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각종 체납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하고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체 체납액의 39.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액 감축을 위해 ‘시·구 합동 영치반’을 편성,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변호관 일제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 고미희 전주시의원 징역형

### 재판부 ‘재량사범비 비리’ 뇌물수수 혐의로

#### 향소심서 징역 6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주민속원사업을 위한 ‘재량사범비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전주시의원들에게 향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시의원에 대한 향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 의원에겐 벌금 70만원 및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자적징지 8개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확정되면 고 의원은 의원 자격을 잃게 된다. 현행법에는 공직자가 일반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재량사범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뇌물 500만원 가운데 50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자의 간접 증언밖에 없어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향소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고 의원이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함께 기소된 송정훈 전 시의원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2016년 8~10월 사이 같은 사업에 재량사범비 예산을 편성해 주고 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 ‘비정규학력 기재’ 오평근 전북도의원 벌금 80만원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비정규 학력 기재된 의정 활동보고서를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평근 전북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오 의원은 예비 후보 등록 전인 지난 2월 의정 활동보고서 주요 학력란에 정규 학력이 아닌 ‘모 대학원 최고과정 수료’라고 기재한 뒤 보고서 1만 6600여 부를 선거구 내 아파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현행 공직선거법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어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재한 비정규 학력 자체가 허위 사실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 익산 한 원룸 부근 신생아 사체 유기

### 재활용품센터 직원이 작업 중 검정 비닐봉투 안에 발견 신고

#### 경찰, 용의자 산모 검거... 산모가 치료 이후 추가 수사키로

익산의 한 원룸 부근에서 아기(영아) 사체가 발견되어 경찰이 산모를 용의자로 검거했다.

또한, 경찰은, 주변 CCTV와 근처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분석하여 사건이 일어난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산모를 용의자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산모는 인근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이었다. 이들을 정거적으로 방문하는 재활용품센터 직원이 쓰레기 수거함에 재활용품을 분리하던 중 검정 비닐봉투 안에 사망한 신생아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발견 당시 사체는 갓 태어난 아이였 것으로 경찰은 사인과 사망추정시각을

밝히기 위해 검시 및 부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산모는 인근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이었다. 이들을 정거적으로 방문하는 재활용품센터 직원이 쓰레기 수거함에 재활용품을 분리하던 중 검정 비닐봉투 안에 사망한 신생아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발견 당시 사체는 갓 태어난 아이였 것으로 경찰은 사인과 사망추정시각을

밝히기 위해 검시 및 부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주변 CCTV와 근처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분석하여 사건이 일어난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산모를 용의자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산모는 인근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이었다. 이들을 정거적으로 방문하는 재활용품센터 직원이 쓰레기 수거함에 재활용품을 분리하던 중 검정 비닐봉투 안에 사망한 신생아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발견 당시 사체는 갓 태어난 아이였 것으로 경찰은 사인과 사망추정시각을